

결과보고 기안 첨부 양식

도서제목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키워드	철학적 사고, 비즈니스, 전략
본 것 ▼ 자기계발 (책)의 주요내용	저자는 철학적 사고, 즉 논리와 이해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학문인 철학을 본인의 삶과 비즈니스에 투영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서두에서도 철학이라는 학문이 현대에서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프롤로그에서도 설명되었듯이 철학을 모르는 사람이 어떠한 전문가로 활동할 때 얼마나 위험한 지, 철학이 모든 학문과 비즈니스 전략에 있어 논리와 공감능력이 동떨어진 것이 아님을 지속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하지만 철학의 실용성에 중점을 두고 서술했으며, 현실에 적합한 철학 사상을 나열하기에 철학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데카르트와 칸트 보다는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와 양자역학을 나열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이론과 경험을 토대로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과정 또한 하나의 철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깨달은 것 ▼ 나의 이해 · 해석	이 책을 접하고 가장 가슴 속에 꽂혔던 단어는 '의심'이었다. 특히 서양 철학에서는 논리와 이해에 관해 많은 것을 논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논리와 '의심'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매사 모든 일에 '의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단순히 의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의심은 무궁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낳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 대해 끊임없이 사고하고 찾아보는 재미 또한 느낄 수 있다. 이 책에서 삶과 비즈니스에서도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이 책과 비슷한 장르의 책에서도 "의심은 '창조'를 낳는다." 라는 문구를 접한 적이 있었다. 무언가에 관한 의심의 시작은 곧 창조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일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다. 이 책에서 언급되었듯이 삶과 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은 인간관계이다. 삶과 일에서도 인간은 관계성에서 중요한 점의 결정이 좌지우지 된다. 분명 인간이라는 복잡한 존재가 단순하게 논리로만 이해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인간과 사회, 그리고 조직에 연관된 부분이 인간관계와 경험에 의해서 학습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한다.
적용할 것 ▼ 개인 · 업무 ·	모든 업무를 대할 때, '의심'부터 하는 것은 좋은 자세라 생각된다. 이 업무를 왜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는 이런 사소한 물음, 즉 '의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왜 해야하는지를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연달아 나오게 된다. 또한 경험에 의해 학습된 많은 부분들이 쌓여 더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한다. 서울비엔날레가 올해로 두 번째 하는 업무다 보니 개인적으로도 경험에 의해 배운 점도 있고, Why와 How를 염두하면서 업무

조직	를 해보면 더 나은 결과에 도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책은 모든 삶과 일에 대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책으로 추천하는 바이다.
----	---

이 독서노트에 대한 진정성에 의심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김나연
(거짓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합니다)